

민주 '당 대표 경선체제' 돌입

27일 원내대표 경선을 마친 통합민주당이 빠르게 '당권경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5일 당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의원은 6·4 재·보선 지원유세에 나서며 지역표심을 높이고 있다.

정 의원은 28일 강원도 고성군수 선거를 지원하고 29일에는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운동을 도울 예정이다.

정 의원 측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에 서 수도권 출신의 원혜영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경선 구도가 더욱 유리해졌다는 자체 판단 아래 세 불리기를 통한 대체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 의원 측에서는 대표 경선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구 민주당 출신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정 의

정세균, 6·4 재보선 지원유세 지역표심 잡기 분주

추미애, 지도부 중심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 강화

정대철·천정배·정규환 의원 등 출마 물밑 조율중

원 측에서 대표 경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당내 화합을 명분으로 구 민주당계 출신의 박상천 대표를 국회의장으로 합류추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도 전·현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며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사전정치' 작업을 하고 있다. 추 당선자는 이날 수도권 중진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자신의 당 대표 출마와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조만간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 당선자 측에서는 현재의 전당대회 구도가 지닌 반성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정치적 기득권 나눠먹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출마 선언과 함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추 당선자 핵심 인사는 "이번 주까지 당내 의원들과 광범위한 의견 교환을 나눌 방침"이라며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주에 이뤄질 것이며 이 자리에서 당원과 국민에 드리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대철 상임고문은 당초 민주당계 출마 선언을 하려던 계획을 바꿔 6·4 재·보선 이후 출마표를 던질 예정이다. 정 고문 측 관계자는 "당분간 원내·외 인사들과 집중적인 접촉을 가지면서 출마 문제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과 정규환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구도가 지닌 반성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정치적 기득권 나눠먹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최고위원 경선 '춘추전국시대'

낙선·낙천 중량급 원외 인사 등10여명 대거 몰려

구민주당 최인기·김효석·박주선 당선자도 거론

오는 7월6일 실시되는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후보난립이 예상된다.

17대에 비해 재선급 이상 의원이 부족해진 데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중량급 원외 인사들이 정치력 확보를 위해 대거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는 의결기구로 격상되기 때문에 당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계파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 정도 세력이 있지 않은 정치인들의 경우 당 대

표 선거보다는 최고위원 선거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현재까지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는 인사만 10여 명에 달하고 있다.

386그룹의 '만형'격이자 손학규 계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굳혔고 재야파에서는 유선호, 문학진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천노 진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씨가 도전장을 던졌고 구 민주당계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최인기 정책위의장, 김효석 전 원내대표, 박주선 당선자 등이 거론되고 있어 내부 교동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

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김진표 의원도 최고위원직 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산의 조경태 의원도 전국 정당화를 내걸고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선 중진인 이미경 의원과 시민사회 출신인 김성희 최고위원(비례대표 당선자) 등 여성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당권·당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태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대 준비위는 당초 출마자가 최고위원 정원의 2배수를 넘어갈 경우 '컷오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컷오프 대신 지역위원장급 인사 30명 가량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형오 VS 안상수

'국회의장' 격돌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5선·부산 영도)이 28일 제18대 국회 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소통의 광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은 시침 앞으로, 인터넷으로 달려가게 된다"면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서 서서 대결과 충돌을 녹이는 '민의를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출마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인 한나라당이 맡게 될 국회의장은 앞서 의장 출마를 선언한 4선의 안상수 의원과 김 의원 간 경선을 통해 결정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내달 2일 국회 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해법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끝장 토론을 한 뒤 표결하는 방법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지에 대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하나 생략돼 버리면 어려워진다"면서 "예전 노동법 파동에서 보듯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체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 원내대표와 외부 인재영입위원장, 제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박재완 정무수석과 향후 정국운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 진용 어떻게 꾸러지나

탈계파·재선 전면배치... 수석 부대표 서갑원, 공보 부대표 조정식 내정

통합민주당의 새 원내서열인 원혜영 원내대표가 18대 국회의 첫 1년을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할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 원내대표측은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적임자를 찾아낸다는 원칙 하에 '탈계파와 재선 전면배치' 두 가지를 인사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양한 정파와 세력이 결합한 신생 정당인 만큼 당의 화합이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계파별 안배에 치우치지 않는 오히려 탈계파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계파간 구분을 없애겠다는 역발상인 셈이다.

재선급 전면 배치는 당 상황과 무관치 않다.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초선이 전체 의원의

72%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25.9%에 불과한 상태다. 반면 재선은 44.4%인 36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재선의 활동이 긴요한 상황이다.

원 원내대표는 원내 부대표를 초선으로 꾸린 한나라당과는 달리, 원내 부대표와 정조위원장을 모두 재선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대안있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원내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 원내 수석 부대표에는 서갑원 의원, 공보 부대표는 조정식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29일께 원내 부대표가 발표되고 늦어도 내주까지는 정조위원장이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 도움 없인 광주 발전 어려워"

호남민들, 한나라당에 마음의 문 열고 다가갔으면

■28년 당료 생활 접는 안재홍 前 한나라 광주시당 위원장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한나라당원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 27일 한나라당 광주시당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안재홍(61)씨가 답이 될 듯싶다. 보성출신으로 서중과 일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안 씨는 지난 1980년 10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 중앙당 사무처에 공채 3기로 입사, 지금까지 무려 28년 동안 한나라당 당료 생활을 해 온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광주시당 위원장 퇴임과 함께 '선진화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변신한 안 씨는 28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먼저, 호남 출신이면서도 호남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한나라당에서 일하게 된 연유를 물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법제처에 근무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민정당을 찾은 것 뿐"이라며 "특별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주변의 민투와 부당 때문에 당 생활 4년 만에 그만 두려고도 했지만, 영남당인 민정당에서 한 사람쯤 호남사람이 호남을 위해 역할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계속하게 됐다"고 했다.

이후 중앙당 기획조정국장, 선거상황반장 등 요직을 지내던 안 씨는 1988년 광주에서 민자당 전

남사무처장을 6년 동안 지내며 호남 정치와 연을 맺게 된다. 지난 15대 선거 때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으며, 2006년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부임,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선, 2008년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제 현실정치에서 한 발짝 물러선 안 씨는 "광주에서 한나라당원으로 일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 만큼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한나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언을 내었다.

'선진화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새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안 씨는 오랫동안 같은 편에서 일해왔던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충고를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광주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호남인의 눈으로 호남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호남이 이해가 될 겁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사진=위적림기자 jrwi@

광주 전남 기능장 大山프리모님네기발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이름가늠할 만큼 자연스럽음

귀여움, 유행성 안경을 좋아하는 유행성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11-873-5888, 873-4822

원산지: 서울 011-807-5330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인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 011-873-5888, 873-4822, 011-807-5330